

산림기술 소식



한국산림기술인회
The Korea Forest Engineer Association

Vol. 27



2025년 9+10월호

한국산림기술인회 소식지



2025년 9+10월호 Vol. 27

CONTENTS



산림 정보 특특!

읽을거리 및 정보 제공

- 01 노무법인이산 무료 법률상담 오픈채팅 안내
- 02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11·12월 교육과정
- 04 정회원 대상 여기어때 제휴 휴양 혜택 안내
- 06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지정 고시
- 08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2025년 워크숍 개최

산림 이야기를 담다

산림 소식 및 전문가 기고

- 12 (시리즈) 새로운 숲을 만나다
- 20 (정회원 기고) “강릉의 극심한 가뭄사태를 바라보며”
- 24 (칼럼) “돌봄은 도움보다 동행이다”

기술인회 +

우리 회 소식 및 공지

- 26 진영문 회장,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영예
- 30 회원회비 변경 및 장기 미납자 처리 안내
- 32 사진으로 보는 한국산림기술인회 뉴스
- 34 2025년 전국 산림안전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결과
- 35 2025년 하반기 숲가꾸기 품질관리 기술교육
- 36 겨울철 안전수칙 및 크리스마스 휴무 안내
- 38 채용정보 게시판 및 산림소식 모집 안내



◀ 소식지 바로보기

회원 여러분의 제안과 리뷰를 기다립니다. members@tkfea.or.kr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의견을 선정해 소개해 드립니다.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한국산림기술인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으며, 소식지에 게재된 글, 사진, 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는 금합니다.



카카오톡 친구 추가



블로그 이웃맺기



밴드 가입하기



유튜브 구독하기

산림기술 소식 4N

발행일 2025년 10월 31일 발행 한국산림기술인회

기획·편집·디자인 한국산림기술인회 일반사업본부 대외협력단

www.tkfea.or.kr (한국산림기술인회)

www.tkfeaeu.com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대표전화 1522-5936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1533-5160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1~3번 교육 문의 / 4번 회원 문의 / 5번 홈페이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아너스빌 2층

한국산림기술인회 정회원

무료 법률상담 제공

카카오톡 오픈채팅 상담

오픈채팅 QR코드



직업병 / 산재 / 법률 문제 등



무료 법률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무법인 이산을 통해 사전 상담을 신청하고, 정회원 확인 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임료 할인 등의 혜택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떤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나요?

직업병, 산업재해 등 업무 중 발생한 법률적 분쟁이나 권익 침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회원이라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노무·법률 전문가를 통해 문제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나 대응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이산

무료 법률상담 문의 : 1599-5475

한국산림기술인회

정회원 관련 문의 : 1533-5160(4~5번)



한국산림기술인회
The Korea Forest Engineer Association



노무법인 이산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11월·12월 교육과정 안내

-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의 11·12월 법정보수교육 교육일정을 안내드립니다 -



교육 신청은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홈페이지
개인회원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 ※ 교육 신청 인원이 최소인원(20명) 미만일 경우 폐강될 수 있습니다.
- ※ 교육 일정은 교육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든 교육과정은
1일 대면 + 4일 비대면 혼합교육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1월 교육과정	
11월 10일(월) ~ 11월 14일(금)	11월 17일(월) ~ 11월 21일(금)
제5기 기본교육	제4기 경영기술과정

12월 교육과정	
12월 8일(월) ~ 12월 12일(금)	12월 15일(월) ~ 12월 19일(금)
제6기 경영 + 공학 통합과정	제6기 기본교육

제6기 경영 + 공학 통합과정(40시간)

이수대상 :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등 2개 이상 자격 소지 및 근무 기술자(매 3년마다 이수)
※ 경영 필수(20시간), 공학 필수(20시간) 분할 신청 가능

제4기 경영기술 전문과정(35시간)

이수대상 : 산림경영기술자 단일 자격 소지 및 근무 기술자(매 3년마다 이수)
※ 통합(35시간), 필수(20시간), 선택(15시간) 분할 신청 가능

제5·6기 기본교육과정(35시간)

이수대상 : 이수대상 : 산림기술자 자격 취득 후 최초 업무 수행자(평생 1회 이수)
※ 자격 취득 후 업무 최초 수행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이수





한국산림기술인회 정회원 대상 여가·휴양 복지 제휴 혜택 안내



우리회는 정회원 여러분의 여가·휴양 복지를 지원하고자, 여행·숙박 플랫폼인 '여기어때'와 제휴를 맺었습니다.

제휴를 통해 다양한 숙박·여행 서비스를보다 합리적인 조건으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편리한 예약 시스템을 통해 개인 및 가족 단위의 여가활동에 큰 도움이 되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용방법 확인하러 바로가기



여행 및 출장 시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혜택 #1

Biz Elite 등급 멤버십 할인가 적용 숙소

일반 회원보다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어요 (평균 13% 할인)



혜택 #2

비즈니스 회원 한정 시크릿 쿠폰백 제공

매월 발급되는 전용 쿠폰으로 숙소는 물론 전국 핫플레이스 레저·티켓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요. [내정보] → [혜택받기] → 다운로드 가능



혜택 #3

무조건, 무제한 3% 할인 쿠폰 제공

국내, 해외 숙소 예약할 때 조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3% 할인 쿠폰을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어요. [내정보] → 다운로드 가능

"포인트 게이백, 중복 할인, 기념별 프로모션 등
다양한 이벤트는 오직 비즈니스 회원 대상으로
진행돼요"



여기어때 어플 다운로드

여기어때 홈페이지 가기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지정 고시 알림

-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대형산불피해지) 지정 -

산림청에서는 대형산불피해지로부터 소나무재선충병의
주변 산림으로의 피해확산 저지를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대형산불피해지)’을
지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상세내용 확인하기

특별방제구역지정

소재지	산림면적(ha)	지정기간	지정사유
경상북도 안동시길안면, 남선면, 남후면, 일직면, 임동면, 임하면, 풍천면	39,781.0	2025. 10. 17. ~ 해제 고시일까지	대형산불피해지로부터 소나무재선충병의 주변 산림으로의 피해확산 저지
경상북도 의성군단촌면, 봉양면, 비안면, 사곡면, 신평면, 안계면, 안사면, 안평면, 옥산면, 의성읍, 점곡면	41,137.5		
경상북도 청송군안덕면, 주왕산면진보면, 청송읍, 파천면	27,071.5		
경상북도 영양군석보면, 입암면	12,469.2		
경상북도 영덕군강구면, 달산면, 영덕읍, 영해면, 지품면, 축산면	28,715.4		

출처 = 산림청고시 제025-75호



사진 1 = 2025년 산림정책·국유림영림단 워크숍 전경

(사)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2025년 산림정책·국유림영림단 워크숍

2025년 10월 23일(목), 아젠토피오레컨벤션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는 지난 10월 23일 제주도 아젠토피오레컨벤션에서 ‘2025년 산림정책·국유림영림단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변화하는 산림정책 속에서 2026년 산림자원분야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국유림영림단원 및 관계 기관 간 소통과 협력 강화를 통해 공동의 발전 방향을 마련하고자 추진됐습니다.

다양한 기관 참여로 의미 더해

이번 워크숍에는 전국국유림영림단 회원을 비롯해 산림청, 한국산림기술인회,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 협력업체 등 약 8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행사는 김관중 협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현안 방향 토의 ▲차기 집행부 구성 ▲분임 토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2026년 산림정책 방향 설명

이날 산림청 산림자원과에서는 ‘2026년 산림 자원분야 주요 정책방향’을 주제로 정책설명을 진행하며, 향후 산림정책 추진 방향을 참석자들과 공유하고 심도 있는 논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산림병해충방제과에서는 재선충병 방제 관련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하며, 효율적인 방제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사진 2 = 국민의례

사진 3 = (사)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김관중 협회장

사진 4 = 주요내빈 모습





사진 8 = 주요내빈 및 영림단원 기념촬영



협회 발전 방향과 안전 특강

우리사회적경제연구소 우종환 연구위원은 '협회의 발전 방향 및 분과 신설, 향후 활동 과제'에 대해 강연을 진행해 회원들의 관심과 공감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김상중 부장의 '산림사업 안전·보건 특강'을 통해, 안전성·환경성·경제성을 고루 갖춘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마련 방안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사진 5 = 산림사업 안전·보건 특강

사진 6 = 한국산림기술인회 송승의 부회장

사진 7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김상중 부장



협회 내실화와 현장 역량 강화 기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참석자들은 협회 운영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내실화를 위한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재선충방제, 산불복원, 안전관리 등 산림사업 현장의 대응 역량 강화와 협회 구성원 간 유대 강화에 큰 도움이 된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사진 9 = 영림단 최병채 정책실장



“새로운 숲을 만나다” 시리즈 독일 하이니히 국립공원의 너도밤나무 숲

글·사진_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배상원 원장

하이니히 국립공원은 1997년에 설립된 독일의 13번째 국립공원으로 튀링겐 주(Thüringen)의 유일한 국립공원이다. 면적은 7,500 ha로 튀링겐주 서부, 베라 강 동쪽에 위치해 있다. 튀링겐 주는 독일 중부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161만 ha, 인구는 237만 명으로 독일 16개주에서 11번째로 큰 주다. 주도는 에르푸르트(Erfurt)로 인구 22만명, 면적 26,900ha이다. 튀링겐 주의 산림면적은 54만 ha로 전체 면적의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수종은 독일가문비나무(31%), 너도밤나무(21%), 구주적송(14%), 참나무(8%)로 독일가문비나무가 1/3 정도로 가장 많다. 그다음으로 너도밤나무가 1/5을 차지하고 있으며, 침엽수와 활엽수는 절반씩 차지하고 있다.

사진 1 = 국립공원에서 본 바르트부르크 성(Wartburg) 전경

하이니히 국립공원은 하이니히 산림지역의 남부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하이니히 산림지역 면적은 16,000ha다. 특히 12,000ha가 활엽수 숲이며, 너도밤나무 숲이 12,000ha를 차지하고 있는 독일 최대의 활엽수림 지역으로 석회암인 해성층(Muschelkalk)이 모암을 이루고 있다. 하이니히 산림지역은 군 훈련장으로 이용된 지역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출입이 통제되어 대부분의 지역이 자연 그대로 방치되었으며, 일부는 원시림의 형태로 발달한 곳도 있다. 하이니히 국립공원의 일부 지역에서는 군사훈련으로 나지가 된 곳이 자연적으로 천이가 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2011년에는 너도밤나무의 생태학적 역사와 유럽 숲의 변천 등으로 하이니히 국립공원의 너도밤나무 숲 1,573ha가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다.

하이니히 국립공원은 튀링겐주 주도 에르푸르트에서 서쪽으로 4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산림면적은 5,417 ha로 전체 면적의 72%, 이중 너도밤나무가 48 %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물푸레나무(19 %), 단풍나무(8%), 참나무(6%) 등 활엽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침엽수인 독일가문비나무와 구주 소나무의 점유비율은 3% 미만이다. 숲 바닥에는 산마늘, 숲바람꽃, 현호색 등 다양한 초본이 자라고 있으며, 하얀 꽃이 피는 산마늘은 10km² 이상의 넓은 면적에 분포하고 있다.

1997년 국립공원 지정 이전에는 숲의 2/3 이상이 목재이용(수확)을 하였으나 현재는 모든 숲에서 목재이용을 하지 않고 있다. 하이니히 국립공원에는 총연장 120km가 넘는 20여 개 트레일 코스가 있고, 숲을 수관 위에서 관찰하고 즐길 수 있는 캐노피 관찰로가 있다.

사진 2 = 수령 300년이 넘는 참나무 노령목





사진 3 = 캐노피 트레일 전경

이외에도 주변에 마르틴 루터가 신약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한 바르트부르크 성(Wartburg)이 있는데 바르트부르크 성은 1999년에는 역사적 중요성과 뛰어난 건축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하이니히 국립공원 중심부에 위치한 하이니히 국립공원센터는 튀링겐 주도 에르푸르트에서 차로 40분 정도 서쪽으로 가면 나타나는데 국립공원센터에는 세계 자연유산, 너도밤나무, 야생동물, 뿌리 동굴 등을 홍보·체험하는 프로그램과 전시물들이 있다.

국립공원센터에서 숲 위에서 자연을 관찰하고 즐길 수 있는 캐노피 트레일까지는 500m 가량 떨어져 있는데 국립공원센터를 지나 숲속에 난 길을 따라 캐노피 트레일 쪽으로 들어가면 길 주변으로 굽기가 한 아름이 넘고 수고도 20~30m가 되는 너도밤나무, 물푸레나무, 참나무, 피나무 등의 활엽수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또한 길 왼쪽에 있는 자그마한 연못에는 녹조류가 뒤덮여 있어 초록색 연못처럼 보이고 수변으로 오리 나무가 자라고 있다.

안으로 더 들어가다 보면 길 오른쪽으로 커다란 로브르 참나무(Quercus robur)가 한 그루 보이는데 이 참나무는 직경 182cm, 수령 350년으로 하늘 높이 자라고 있다. 캐노피 트레일은 총연장 540m로 아래쪽 수관층(10m)에서 시작해서 서서히 24m까지 올라가는 두 개의 테마 순환 코스로 이루어져 있다. 캐노피 트레일에 올라서면 커다란 활엽수들이 바로 눈앞에 보이고, 트레일 곳곳에는 동식물에 대한 정보가 담긴 안내판이 있어 청소년과 일반인에게 국립공원과 자연 생태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에 핀 하얀 피나무 꽃과 빨갛게 익은 버찌는 새로운 숲의 모습을 보여준다.. 트레일을 따라 높이 44m의 전망대에 오르면 뭉게구름 같은 수관으로 가득 찬 하이니히 지역 활엽수 숲과 튀링겐 분지의 널따란 초지를 볼 수 있다.

사진 4 = 전망대에서 보이는 숲과 농경지 전경
사진 5 = 하얀 꽃이 핀 피나무 군락





사진 6 = 너도밤나무 숲 입구의 국립공원 입간판

사진 7 = 회색빛 줄기의 너도밤나무 대경목 숲

사진 8 = 너도밤나무 고사목 줄기에 자라는 발굽버섯



활엽수 숲 중간에 줄지어 서 있는 갈색으로 변한 독일 가문비나무 고사목의 모습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피해와 이 지역이 너도밤나무 활엽수 지역임을 전해주고 있다. 이 숲을 이루고 있는 너도밤나무는 수고가 30m에 가깝고 크고 작은 너도밤나무들이 같이 자라고 있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숲속 길을 지나다 보면 어린 나무숲에서부터 노령림까지 다양한 수령의 숲이 군상으로 분포를 하고 있다.



사진 9 = 나무가 뻗뻗하게 자라 숲바닥에 풀이 없는 너도밤나무숲

하이니히 국립공원에서 너도밤나무 노령림 모습을 잘 보여주는 숲은 국립공원센터에서 서쪽으로 차량으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크라우라(Craula) 마을 서쪽에 있는 너도밤나무 숲이다. 숲 입구에 있는 커다란 국립공원 입간판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너도밤나무숲이 울창하여 대낮에도 그늘이 저서 어둡게 느껴질 정도이다. 커다란 너도밤나무 노거수는 굵기가 한 아름이 훨씬 넘고 수고는 30m 정도로 하늘을 찌를 듯이 자라고 있는데 줄지어 서있는 너도밤나무줄기는 마치 궁전의 대리석 기둥을 보는 듯하다.

커다란 너도밤나무 고사목 줄기에는 말발굽처럼 생긴 발굽버섯이 줄지어 자라고 있는가 하면 커다란 너도밤나무 그루터기에는 작은 너도밤나무 치수가 자라고 있고 그 주변으로도 어린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보면 자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너도밤나무의 생명력과 고사목을 이용하는 자연의 힘이 느껴진다. 너도밤나무 숲 바닥에는 하얀 꽃이 피는 산마늘이 양탄자를 펴 놓은 듯 가득 자라고 있는데 여름에는 꽃이 지고 기다란 꽃대가 누워있는 모습이 새롭게 보인다.



사진 10 = 초지와 어우러진 너도밤나무 숲 전경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모이는 너도밤나무 노거수 숲을 지나 안으로 더 들어가면 숲 바닥에 풀이 없는 황량한 곳이 나오는데 이 숲은 울창하여 햇빛이 거의 못 들어와서 풀로 못 자랄 정도로 굵기가 20~30cm 되는 너도밤나무가 나무가 뻗뻗하게 자라고 있다. 너도밤나무는 적은 양의 빛에도 자라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많은 빛을 필요로 하는 다른 수종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생육본수가 많아 경쟁이 심한 곳에서는 고사목도 발생하기도 한다.

국립공원 지정 이전에 군 훈련장으로 이용이 되어 나지가 된 지역에 들어서면 30년 정도가 지났지만 천이가 진행이 되어 숲을 이루고 있어 자연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울창한 숲을 지나 초지로 들어가면 너도밤나무숲이 장벽을 친 듯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앞으로 초록빛 초원과 농경지가 넓게 펼쳐있고 무성한 작물 사이에 꽃양귀비가 듬성듬성 자라고 있는 모습은 목가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하이니히 국립공원에는 세계 자연유산인 너도밤나무숲과 인근에 세계 문화유산인 바르트부르크 성이 있는 역사·문화·자연 등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로 알려져 있다. 특히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대면적 활엽수 숲과 자연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너도밤나무숲은 너도밤나무숲의 다양한 모습과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인위적인 피해지에 자연적인 천이가 되는 너도밤나무숲에 대한 연구와 다양한 산책·관찰로와 캐노피 트레일은 방문객들이 자연을 즐기고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

사진 11 = 경작지의 꽃양귀비



한국산림기술인회 정회원 기고

강릉의 극심한 가뭄사태를 바라보며

글_한국산림기술인회 정 병 걸 정회원

“한 방울의 물로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시점에
산과 물을 잘 다스려 어려움을 극복한 우리 선조들의 지혜로움을 거울삼아야 한다”



우리나라 치산치수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를 거쳐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온 슬기로운 정책으로 현대에는 국책사업으로 발전해 산림보호·재해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산과 물을 잘 관리하여 가뭄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의미하며, 산을 먼저 다스리고 물을 다스리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농경사회가 기본이었던 우리 민족에게 젖줄의 근원인 물은 생명의 원천이나 다름이 없었다.



치산은 1970~1980년대의 산림녹화 정책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며, 이는 산사태나 수해 방지를 위해 험벗은 민둥산에 나무를 심는 등 산을 잘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치수는 강의 하구보다 계곡의 물부터 다스리며, 저수지나 보를 상류에 설치하여 지혜롭게 물의 이용과 자연재난에 대처하여 왔다.

우리 숲이 연간 공급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수자원 총량의 약190억 톤(15% 정도)으로 소양강댐 유효저수량의 10배에 달하며, 숲가꾸기 사업은 숲이 저류(흐르지 않고 머무르는 것) 할 수 있는 물의 양을 연간 약50억 톤을 더 늘릴 수 있으며 이는 소양강댐 3개를 더 건설해야 얻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

댐은 일제시대 수풍댐, 화천댐 등을 시작으로 해방 이후 소양댐, 안동댐 등 용수공급이나 발전용으로 건설하여 현재 다목적댐 17개, 용수 전용댐 14개, 수력발전댐 8개, 홍수전용댐 2개(하구둑, 농업용 저수지, 양수발전댐 등은 제외) 등이 존재한다. 물관리 주체에 따라 용도에 맞게 적지 적소에 건설되었고, 전국 농업용저수지는 약3,400여 곳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서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하여 관리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온 등으로 2030년이면 우리나라도 멕시코, 아프리카 등과 같이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34개국이 물 부족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고하고 있다. 이 때문에 21세기는 물 전쟁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학자들은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은 끝장을 보려는 가뭄 앞에 속수무책이 되어 버렸다. 대자연 앞에서 인간이 이렇게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호되게 겪고 있고, 옛말에 ‘물 쓰듯 쓴다.’ 라는 이야기는 물은 마시는 공기처럼 맘껏 쓸 수 있는 자연자원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겪은 극심한 가뭄으로 물의 소중함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강릉시는 1986년부터 강릉댐(오봉저수지)에서 생활용수로 공급받으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원수대금을 연간 약18~40억 원을 지급하고 있다. 물론 댐 건설, 준설비, 인건비 등 유지비용이 상당 부분 소요되겠지만, 40여 년간 약800억 원의 물 값이라니? 중·소형댐을 추가로 건설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닌가? 옛말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번다.’ 또는 ‘뽕이 김선달인가?’ 라는 이야기 처럼 일부 강릉시민은 물론이고, 강릉에 고향을 둔 필자도 농·임업인의 한사람으로써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다.

해방과 6.25 동란 이후 우리 산림은 황폐화가 극에 달했다. 우리 산은 나무가 없는 죽음의 땅,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불모지였다. 1973년부터 20여 년 동안 치산녹화 계획을 수립 최선을 다해 국토녹화를 끝낼 수 있었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산림복구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시점에 산을 다스리는 분야와 물을 다스리는 분야간 상충되는 부분에 있어 일부 정책 전환, 새로운 제도도입 등 산림 및 물관리 정책·시행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본 지면을 빌어 두 가지 정도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험준한 산악지형과 화강암, 석회암 지질대로 토심이 얇고 연약한 지반이라 지하수 개발이 원활치 않고,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 대형산불, 가뭄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물 분쟁이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는 추세이다. 한 방울의 물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시점에 산과 물을 잘 다스려 어려움을 극복한 우리 선조들의 지혜로움을 거울삼아 국민 모두가 계속되는 홍수와 가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합쳐 K-대한민국의 저력을 발휘했으면 한다.



산림자원조성 사업의 예산확충으로 국가업무로 되돌려야 한다. ☆

수년전부터 ‘민유임도’는 재정분권 정책으로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편성함에 따라 주민 체감이 높은 상하수도 사업, 마을회관 증·개축 등 타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려 지지부진한데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민유조림(약1천억 원) 및 민유숲가꾸기(약1.6천억 원) 사업도 지자체로 이관계획이라 한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방비 충당도 어렵다는 지자체가 산림사업의 예산을 자율편성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전국의 댐, 저수지 등 산림(숲)이 기여한 부분을 별도로 산출, 이를 재원으로 하여 물을 머금(수원함량)는 근간인 조림, 숲가꾸기, 임도 등 **산림자원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국가지원 편성예산으로 바로 되돌려야 한다.**

☆ 산주들의 임업직불금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 산림면적은 2020년 기준 6,298천 ha로써 전국토의 63%에 해당하며, 이중 국가 및 지자체 소유의 국·공유림이 34%, 일반 국민 등의 소유 산림이 66%로 산림면적의 많은 부분이 사유림이다. 산주수는 2,198천 명이며, 21만 명의 임가 중 2024년에 약 10%(2만 1천 여명, 약 540억 원) 만이 혜택을 받았을 뿐이다. **더 많은 임업인들이 산림경영의 참여를 위해선 임업직불금의 단가 인상 및 확대가 필요하고,** 이러한 재원의 확보는 산림조성사업과 함께 수원함양림 지정면적을 고려하여 상수도 사용요금에서 총당하는 정책과 제도 마련을 요구할 시점으로 보인다.

“ **국민 모두가 계속되는 홍수와 가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합쳐 K-대한민국의 저력을 발휘했으면 합니다** ”

숲처럼 사람을 품는 삶의 기록

"돌봄은 도움보다 동행이다"

글_한국산림기술인회 이사 · 前 KBS 시사고발 PD

나는 30년 동안 방송국 PD로 살아왔다. 사회 곳곳의 부패, 환경 파괴, 복지의 사각지대를 카메라로 비추며 '정의'와 '진실'이라는 단어를 붙들고 버텼다.

환경오염, 밀렵, 불법벌목, 사회적 약자 문제를 다루며 환경부 장관 표창, 녹색언론인상, 대한적십자 총재 표창, 그리고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반부패방지 공로로 노무현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



그러나 은퇴 후, 나는 전혀 다른 현장에서 있다. 지금 나는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한 지적장애 청년 '규종이'를 돌보고 있다. 카메라를 내려 놓고, 그의 손을 잡은 지 어느덧 3년. 그와 함께한 시간은 내 인생의 또 다른 숲이었다.

그는 말을 하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그의 눈빛과 손끝에서 세상의 깊이를 본다. 그의 하루는 느리지만, 결코 멈추지 않는다. 그 느낌은 오히려 내가 잊고 살았던 '인간의 시간'을 되 돌려준다.



"나는 그를 돌봤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가 나를 치유하고 있었다." 그를 통해 나는 '돌봄'의 의미를 새롭게 배웠다. 돌봄은 일방적인 도움의 행위가 아니라, 서로의 온도를 나누는 '동행'이었다. 그것은 나무가 나무를 가리지 않고 함께 자라는 숲의 이치와도 닮아 있다.

지금 나는 한국산림기술인회의 한 사람으로, 사람과 자연, 그리고 기술이 함께 살아가는 숲을 꿈꾼다. 숲을 돌보는 일이나 사람을 돌보는 일이나, 본질은 같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우리의 기술이 산림을 회복시키듯, 한 사람의 마음을 품는 일도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이다. '돌봄'은 숲의 순환처럼 이어져야 한다. 누군가의 삶을 지탱하는 뿌리로, 또 다른 이의 그늘로.

나는 여전히 기록한다. 이제 그 기록의 대상은 뉴스가 아니라 '사람'이다. 숲을 닮은 삶, 그리고 사람을 품는 기술, 그것이 내가 믿는 인간존엄의 숲이다.



그동안의 기록은 두 권의 책으로 엮어질 예정이다. 《돌봄의 현장에서 - 규종이와 나, 침묵의 1000일과 규종이 시리즈 10부작》은 내가 걸어온 삶의 궤적이자, 인간과 돌봄에 대한 응답이다.

이 두 작품은 2026년 출간 예정으로, 돌봄의 현장에서 마주한 인간의 존엄과 사랑을 문학적으로 담아낼 것이다. "사람을 기록한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다."

나는 오늘도 숲처럼 사람을 품는 글을 쓰고 있다. 그 길 위에서, 삶은 여전히 자라고 있다.



한국산림기술인회 진영문 회장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영예”

제24회 산의 날 기념행사서 수훈 ... 임업·산림복지업무 공로 인정

한국산림기술인회 진영문 회장이 제24회 산의 날 기념행사에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하는 영예를 안았다. 국민훈장 모란장은 정부에서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인물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국민훈장 5등급 중 두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진영문 회장은 지난 40여 년간 산림기술사로서 전국의 산림 현장을 누비며, 정책·기술·안전·인력양성 등 산림 전 분야의 발전을 선도해왔다. 특히 거목산림기술사사무소 대표로서 임업 및 산림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산림복지서비스 품질 향상, 산림 기술인의 권익 보호 및 제도 개선을 위해 헌신해왔다.

이를 통해 산림기술 분야의 전문성 제고와 조직의 위상 강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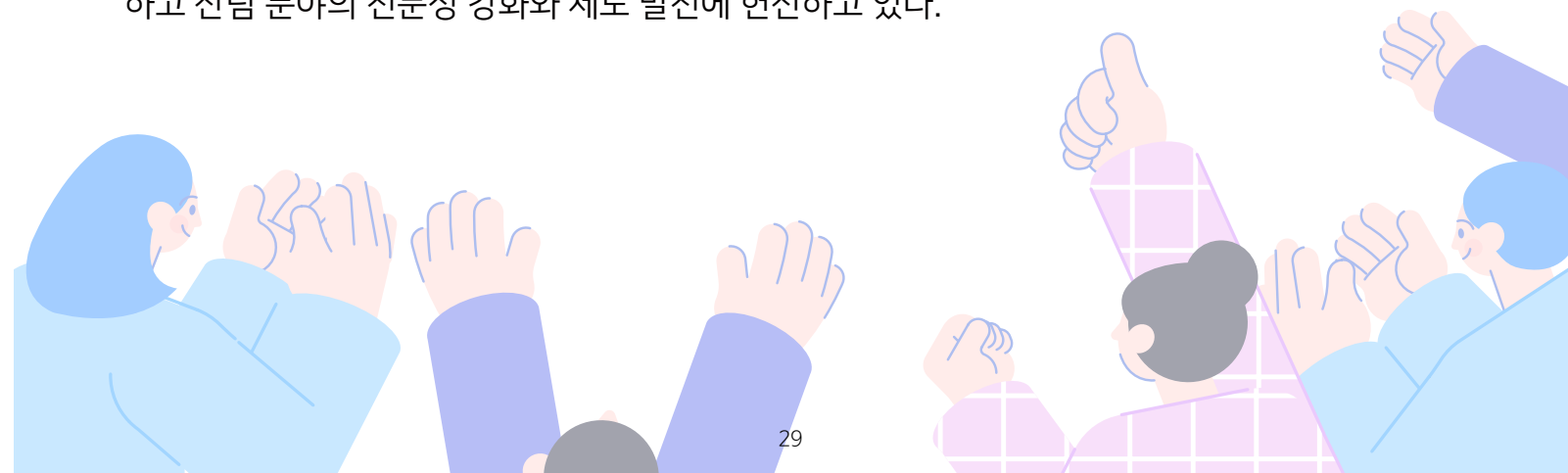
앞서 한국기술사회 덕원기술상을 수상한 데 이어 이번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은, 진영문 회장이 오랜 기간 산림 분야 발전을 위해 쌓아온 헌신과 노력을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진영문 회장은 “이번 수훈은 개인의 영예라기 보다, 오랜 시간 묵묵히 산림 현장을 지켜온 전국의 산림기술인 모두에게 주어진 훈장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산림기술인의 전문성 강화와 권익 보호, 그리고 우리 산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장과 정책, 기술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영문 회장은 원광대학교 농학박사이자 산림기술사로서 한국치산기술협회 전문위원, 국무조정실 정부업무 국정과제 평가전문위원, (사)한국산림기술사협회 전북도지회장 등을 두루 역임하고 산림 분야의 전문성 강화와 제도 발전에 헌신하고 있다.



한국산림기술인회

회원회비 변경 장기 미납자 처리 안내



한국산림기술인회 정회원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지난 제4차 이사회에서 정회원 회비 및 연회비 변경안과 장기 미납자 제명 처리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회비 변경 및 장기 미납자 제명 처리는 회원 서비스 개선과 운영 효율화를 위해 진행되었으며, 회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입회비·연회비 변경

기존 정회원 : 2026년 부터 변경된 회비 적용 ※ 미납금의 경우 기존 고지 금액 유지
신규 정회원 : 2025년 제4차 이사회 확정 시점(25.10.16.)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

3년 이상 회비 미납 회원 처리

본회 정관에 따라 3년 이상 회비 미납 회원 제명처리('25.10.16.)
※ 2025년 제 4차 이사회 최종 확정, 회원 관리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위한 안내
장기 회비 미납에 따른 제명처리자의 경우 재가입 시 신규 절차에 따름

회원관리규정 확인 바로가기



회원회비 정액

개인회원

자격등급별	입회비	연회비	특별회비	비 고
기술특급	150,000원	50,000원	이사회 결의액 또는 자율	[기존회원] 2026년 적용
기술 초·중·고급	100,000원	30,000원		[신규회원] 이사회 확정일 (25.10.16.)이후 가입자 적용
기 능	50,000원	20,000원		

※ 산림기술법 제9조에 의한 산림기술자가 아닌 회원의 경우 회비는 다음과 같다.

- 박사학위 소지자 및 기관·단체 또는 업체 대표 : 기술특급
-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및 기관·단체 또는 업체 임원 및 회원 : 기술중·고급

업체회원

자격등급별	입회비	입회비	연회비	특별회비	비 고
산림기술용역업	종 합	500,000원	120,000원	이사회 결의액 또는 자율	[기존회원] 2026년 적용
	전 문 업	200,000원	80,000원		
산림사업시행업		200,000원	80,000원		[신규회원] 이사회 확정일 (25.10.16.)이후 가입자 적용
기타 업체 및 단체		200,000원	100,000원		

사진으로 보는 한국산림기술인회 뉴스
The Korea Forest Engineer Association News



2025년 주요 업무보고 회의



농특위 임업인단체 간담회 참석



2025년 제4차 정기 이사회



진영문 회장,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춘천국유림관리소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홍천국유림관리소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제24회 산의 날 기념행사 참석



제34회 한국전문임업인 전국대회 참석



무주국유림관리소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영암국유림관리소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2025년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워크숍 참석



2025년도 전국산림경영인대회 참석

한국산림기술인회

2025년도

전국 산림안전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자 발표

" 2025년도 전국 산림안전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자를 발표합니다"

최우수상
(산림청장상)

[단체]
남부지방산림청 기획안전팀

우수상
(한국산림기술인회장상)

[개인]
서 * 은 (산림기술자)

장려상
(한국산림기술인회장상)

[개인] 김 * 지 (산림공무원)
[개인] 최 * 오 (산림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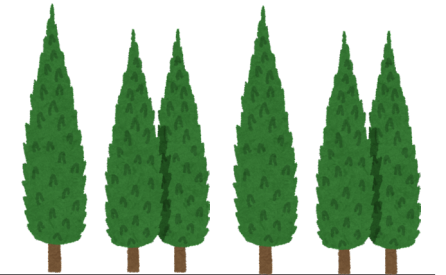
한국산림기술인회
The Korea Forest Engineer Association



2025년

하반기 숲가꾸기 품질관리 기술교육

숲가꾸기 설계·감리·사업시행·감독 담당자 교육 실시를
통한 실무 담당자의 능력 배양 및 사업 품질 향상



교육안내

교육기간

2025년 11월 5일(수) ~ 11월 28일(금)

교육비

무 료(별도 참가신청 없음)

교육일정

일자별 14:00 ~ 17:00(3시간)

교육대상

숲가꾸기 담당 공무원, 산림기술자(설계·감리·사업시행)

교육내용

- 숲가꾸기 품질관리 우수·불량 사례
- 숲가꾸기 품질관리 기본사항
- 산주직접 산림사업 관계자 교육

교육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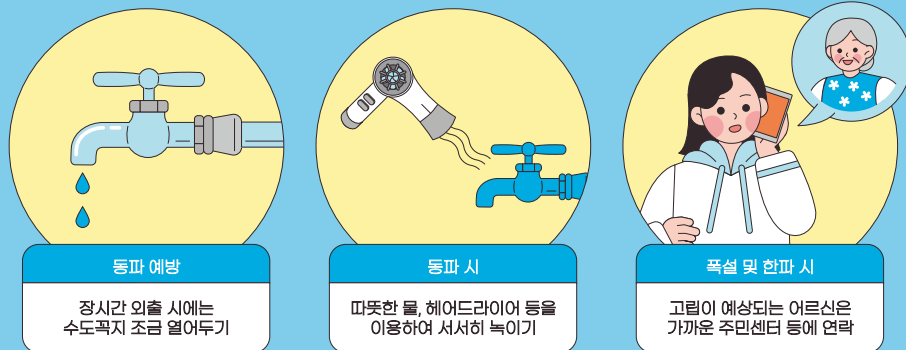
산림기술연구원(042-472-9865)

교육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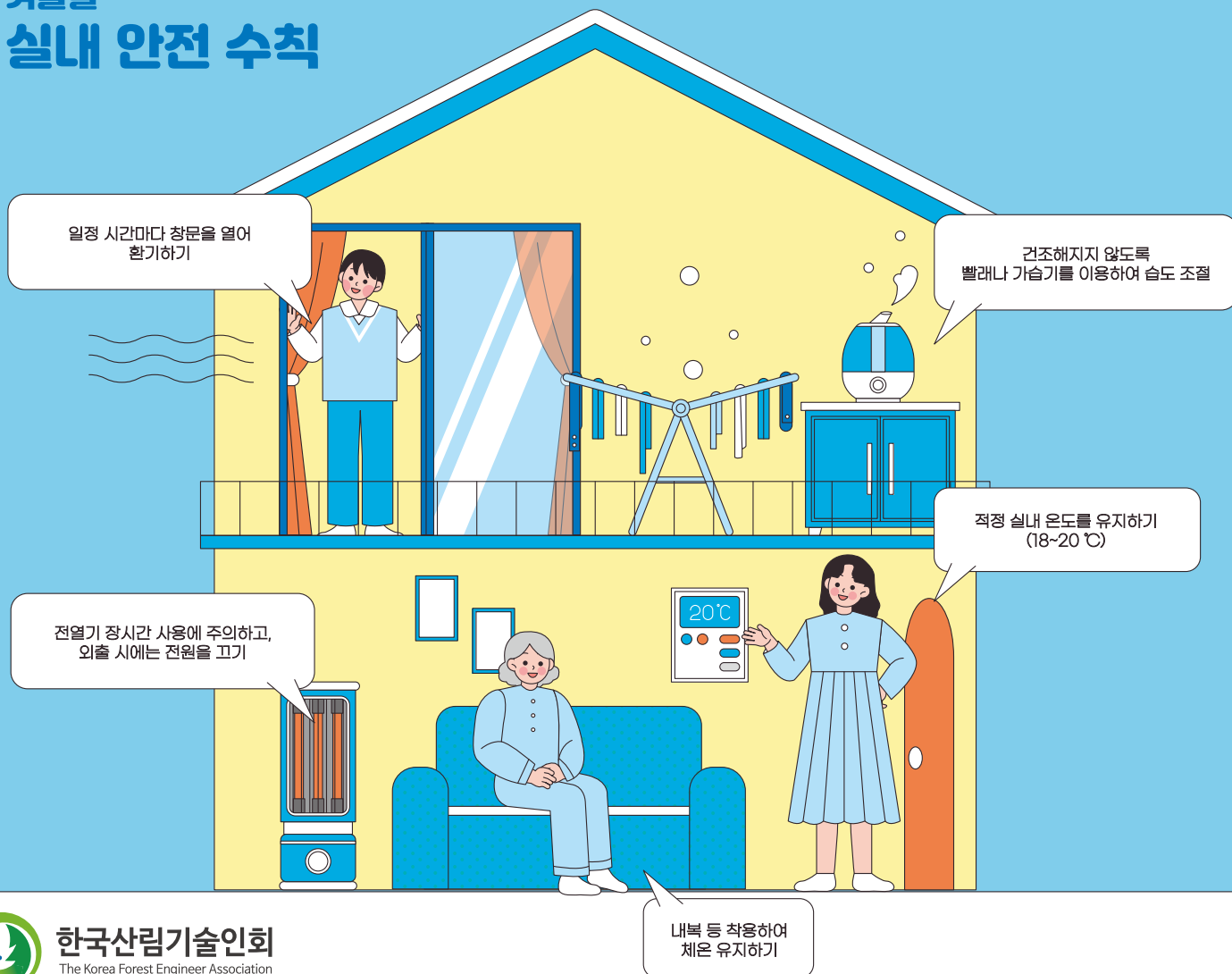
교육일정	교육장소	수용인원
11월 5일(수)	(홍성) 충청남도 보훈관 기획전시관 회의실	60
11월 7일(금)	(나주) 전남 산림자원연구원 비즈니스센터 대회의실	50
11월 12일(수)	(전주) 전북도청 공연장 세미나실	35
11월 14일(금)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401호	20
11월 18일(화)	(청주) 미동산수목원 산림교육센터 1층 대강당	60
11월 20일(목)	(진주) 경남도청 서부청사 중강당	50
11월 21일(금)	(안동) 경북도청 홍익관 정보화교육장 2강의실	70
11월 28일(금)	(춘천) 산림조합중앙회 강원지역본부 2층 회의실	100

※ 본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며,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일부 교육장이 협소하오니, 8개 도로 구분된
지역별 공무원들의 참석인원을 감안하시어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한 7가지 수칙 ❄️



겨울철 실내 안전 수칙



한국산림기술인회

크리스마스 휴무 안내



· 12월 25일 목요일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1	22	23	24	25	26	27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 공휴일로
민원안내서비스(ARS)가 중단됩니다.

12월 26일(금)부터 정상 운영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휴무일에도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 이용은 가능합니다.

구인·구직이 필요하다면?

산림기술자 채용정보 게시판에서 구인 정보 등록하고 확인하세요!

한국산림기술인회 업체 정회원이라면 홈페이지
산림기술자 채용정보 게시판에 구인 정보 등록이 가능합니다.

개인 정회원도 채용정보 게시판 이용이 가능하며,
구직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1 홈페이지 업체 로그인
- 2 채용정보 등록(사용자)
- 3 확인 및 승인(관리자)
- 4 게시판 게시 완료

※ 본 게시판은 구인자가 직접 게시글을 등록하며,
한국산림기술인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림기술인회 소식지

산림 관련 사진과 사연을 모집합니다!

상시접수

“ 산림과 관련된 사진이나 사연을 보내주세요. 정회원 여러분의 간직한 이야기와 추억을 매달 발행되는 한국산림기술인회 소식지 ‘산림기술 ON’에 실어드립니다. ”

참여대상

2025년 회비를 납부한 한국산림기술인회 정회원

모집내용

산림과 관련된 사연 및 사진

참여방법

이메일(tkfea4321@naver.com)제출

※ 원고 분량 A4 1~3장 이내, 사진 해상도 최소 2500px

유의사항

이메일 발송 시 보내시는 분의 기본사항(이름, 연락처, 주소)를 반드시 함께 보내주시길 바라며, 발송 일자과 원고 게시 시점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참여혜택

사진 및 사연이 채택된 회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한국산림기술인회
The Korea Forest Engineer Association

Vol.27

산림기술 소식 N

2025년 9+10월호

한국산림기술인회 소식지